

미군, 아프간 병원 폭격 논란 확산

어린이 등 22명 사망...국경없는의사회, 독립조사 요구

이라크 등 민간인들 희생 빈번...폭격원칙 또 도마 위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서 ‘국경없는 의사회’(MSF) 병원을 폭격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 공습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을 초래한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폭격 원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가

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쿤두즈의 MSF 병원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환자 10명, 의료진 12명이며 부상자도 37명이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환자로 가득 찬 병원이 폭격을 당하면서 환자들이 산 채로 불에 타 숨졌다고 전했다.

MSF는 이번 폭격을 전쟁범죄로 간주하면서 분쟁 당사자인 미국이나 아프간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스톡스 MSF 사무총장은 “전쟁범죄가 발생했다는 분명한 전제하에서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한다”면서 “분쟁 당사자의 내부 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조사 결과는 수일 내로 나올 예정이다. 현재 미군은 병원 인근에서 폭

격을 가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탈레반 공습 와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부수적인 피해란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사상을 뜻하는 용어다. MSF는 전제하에서 병원 건물만 반복적으로 정밀 폭격을 당했고 다른 곳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면서 의도적 폭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MSF는 쿤두즈 병원에서 더이상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면서 중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철수했다. 일부 의료진은 폭격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미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희생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쿤두즈 지역의 유일한 외상치료 병원이었던 MSF 병원의 폐쇄로 아프간군과 탈레반의 교전 격화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군의 폭격 원칙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탈레반과 IS를 공습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을 초래해 비난받아왔다.

미국은 목표물을 정확히 확인해 민간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때만 폭격을 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2009년 5월 아프간에서 미군 공습으로 민간인 140명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아프간 당국의 발표에 미군은 민간인 사망자가 26명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미군이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패해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미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격을 당하면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중 ‘위안부·난징 학살’ 기록유산 기대

유네스코, 오늘까지 심사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및 난징(南京)대학살 기록의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는 4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이 신청한 군 위안부, 난징대학살 기록을 포함해 모두 88건의 기록유산 신청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전문 가담을 난징에 보내 기록물을 검토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유네스코에 신청한 군 위안부 자료에 대해 “중국 동북지역에 주둔하며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관동현병대 사

료(당안), 상하이(上海) 공공조계 경무처 사료, 왕징웨이(汪精衛) 정권(1940~1945년 난징의 친일傀儡정부) 사료, 만주 중앙은행 사료, 일본 전범의 서면자백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난징대학살 기록문서는 옛 문서와 사진, 필름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가 등재권고를 결의하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추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국 측은 일본이 난징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밀실 논의’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신청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미국의 기록유산 신청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12개국 ‘TPP’ 타결 임박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막바지 세부사항 조율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통상장관회의가 당초 이틀간의 일정을 훨씬 넘긴 4일(현지시간)까지도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막바지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인 TPP 장관회의는 이날까지 꼬박 닷새를 보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에 참가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6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가 다시 무기 연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회의 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상

분야 소식통들은 이날 밤 11시를 전후해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중에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대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품목에 대한(시장) 접근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양자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협상 타결 전망 자체에는 “낙관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식통들은 자동차 원산지문제와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문제가 사실상 가닥을 잡은 만큼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은 예상됐던 수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길어지는 것도 주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1 최초의 황제 진시황

중국문화 전문가 다케우치 미노루는 진시황을 공자,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 역사상 4대 위인의 하나로 꼽았다. 마이클 허스트는 진시황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18번째 인물로 선정했다.

진시황의 본명은 영정으로 BC 259년 출생했다. 조나라에 인질로 갓 진왕 즉위 후의 아들이다. 자초가 거상 여불위를 만나지 못했으면 천하 통일의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 것이다. 여불위는 자초를 보자 “기이한 재화다”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그대의 문(門)을 크게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여불위는 태자 안국군의 처화양부인을 설득해 자초를 양자로 만드나. 자초는 안국군의 뒤를 이었지만 3년만에 병사하여 13세 영정이 제위에 올랐다. 영정이 사실은 여불위 소



이 다른 나라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왕은 촉객력을 거둬들였다. 통일 이후 행보는 제국 통치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천하 국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었다.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문자 통일을 추구하였다. 진제국 이후 2천년 간 이어진 전제군주제와 군현제를 채

중국통일...군현제 실시 전제정치 확립 만리장성 축성·분서갱유로 몰락 자초

생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사기(여불위 열전)에는 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세부터 친정하여 한·위·조·연·제·초 등 6국을 멸망시켜 BC 221년 천하를 통일했다. 통일의 배경으로는 강력한 군사력과 상양 개혁 이후 다져진 국가체제 그리고 신분과 지역을 초월해 발탁한 인재집단을 들 수 있다. 왕전 이신 등 당대의 명장이 통일의 초석을 깔아주었다. BC 225년 초나라와의 결전에 역전 노장인 왕전에 60만 대군을 맡긴다. 그는 직접 왕전의 집까지 찾아가고 자신의 딸 화양공주와 혼례까지 시킨다. 왕전은 대승했고 통일대업은 완수되었다.

이사를 중용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초나라 상제(지금의 하남성) 출신인 이사는 통일과 제국 통치의 초석을 닦는다. 이사의 부상에 구세력은 타국 출신을 견제하기 위해 촉객(逐客)을 올린다. 간촉객서(讒逐客書)를 올린다. 간촉객서의 요지는 세가지다. 첫째로 타지인들이 진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실을 상기시켰다. 둘째로 촉객은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나라에서 쫓겨난 인재들

태하였다. 왕자를 지방의 왕으로 봉하는 제도를 폐하고 이사의 건의에 따라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군현제를 채택했다. 직접 지방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전제정치의 정치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제국 운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리장성 축성과 분서갱유 사건은 몰락을 부채질했다. 신선의 도를 닦는 방사 노생이 “저는 도를 관권 구했는데 안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胡)라는 글이 있습니다”라고 참언하였다. 진시황은 몽염을 불러 만리장성 축성을 지지시켰다. 그러나 축성에 동원된 농민의 희생은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다.

그는 BC 210년 전국을 순유하는 중 허베이성 사구에서 죽었다. 진제국은 2대 황제인 호해 치세에 멸망했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마오쩌둥은 하나의 나라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위인으로 평가했다. 명대의 학자 이지는 마땅히 천고일제(千古一帝)어야 한다고 옹호했다. 사마천, 사마광 등은 그의 공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진시황은 천고에 없는 위대한 폭군이였다. <초당대학교 총장>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m2(668평)
건물 4218m2(1276평)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 파격적인 임대조건(보증금 및 차임)

문의 010-7570-7525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